

江原道 麟蹄郡 南面 一帶의 石塔

辛 鍾 遠*

目 次

- | | |
|--------------|-------------------------|
| I. 調査經緯 및 意義 | 2. 甲屯里 三層石塔 |
| II. 遺物現況 | 3. 上南里 石塔材 |
| 1. 甲屯里 五層石塔 | III. 甲屯里 五層石塔과 「김부대왕」전설 |

I. 調査經緯 및 意義

필자는 1993년 3월 강원도 당국으로부터 麟蹄 지역 석탑에 대한 문화재 현지조사 의뢰를 받고, 두 차례에 걸쳐 위 지역을 답사하였다. 필자가 소견을 제출한 뒤, 이들 유물은 강원도 문화재자료 117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인제군 남면 일대의 석탑은 문헌자료가 드문 강원도 산간지역의 유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뿐만 아니라 甲屯里 五層石塔에는 「太平十六年· · ·」의 절대연대를 가진 發願文이 새겨져 있어, 탑을 세울 당시의 배경과 아울러 이 시기(高麗 靖宗 2年, 1036) 석탑 양식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갑둔리와 인접한 마을은 金富里이다. 이 洞名에 대해서는 신라 敬順王 金傅와 관련하여 여러 전설이 전해져 오고, 위의 有銘 五層石塔은 그 전설이 단순히 전설이 아님을 보여주는 物證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아래에 필자는 이들 유물의 현황을 소개하고, 주변 유적과 金傅史蹟의 관련 與否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II. 遺物現況

1. 甲屯里 五層石塔(麟蹄郡 南面 甲屯里 산 69번지)

이 탑은 甲屯里에서 金富里로 넘어가는 도로의 남쪽 약 500m지점의 산기슭에 있다. 2重 基壇

* 강원대학교 박물관장

위에 세운 5層石塔으로 원래 무너져 있던 것을 1987년 10월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하였는데, 기단부는 일부 파손된 부분이 있지만 완전하며 塔身部는 1~4層까지의 屋蓋石 4개만 남아 있고 1~3層 屋身, 5層 屋蓋石은 새로 만들어 끼웠다. 相輪部도 露盤과 覆鉢은 새로 만든 것이며 仰花와 4개의 寶輪만 원래의 것인데, 보륜 역시 半破된 것을 시멘트로 보강한 것이다.

基壇部는 地臺石위에 2枚로 짝 下臺 中石이 놓여 있는데 各面에는 2軀씩의 眼象이 새겨져 있으며, 下臺 甲石은 파손이 심한 편인데 윗면에는 1段의 받침을 두었다. 下臺 中石은 兩隅柱가 模刻되어 있는데 그 중 東面에 陰刻 銘文이 있다. 上臺 甲石 윗면에는 3段으로 모난 받침을 두어 塔身을 받게 하였다.

銘文은 「菩薩戒弟子仇上△ 金富壽命長存△ 五層石塔成永充供養太平十六年丙子八月日」으로서, 「太平」은 遼 成宗의 연호(1021~1030)이나 이 곳에서는 6년 뒤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各層 屋蓋石의 遞減率은 거의 없는 편이며 3段의 屋蓋받침을 낮게 두었다. 처마선은 비교적 水平을 잘 이루다가 轉角 部分에서 反轉되었고, 옥개석의 윗면도 轉角에서 약간 反轉되었는데 落水面은 급하지 않다. 3층과 4층의 옥개석 上面에는 屋身 받침이 있는데 屋身 받침으로 보기에는 약간 높은 편이어서 윗층의 屋身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탑 앞에는 拜禮石(前面 너비 48cm, 側面 너비 37cm, 높이 17cm)이 하나 놓여 있는데 윗면에는 蓮花紋이 陽刻되어 있다. 蓮花紋은 子房을 중심으로 單瓣 4葉과 그 사이 사이에 間瓣을 각 1葉씩 배치하였다.

탑 옆에는 板石(길이 61cm, 너비 61cm, 높이 12cm)이 하나 있고, 그 위에 네모난 蓮花臺石(下端 너비 42cm, 上端 너비 20.5cm)이 있는데 중앙에 지름 12cm의 구멍이 있다. 蓮花臺石 위에 石燈의 일부로 보이는 8角의 옥개석(지름 40cm, 높이 13cm)이 놓여 있는데, 지름 5.5cm, 깊이 2cm의 구멍에 相輪(높이 12cm)이 끼워져 있다.

2. 甲屯里 三層石塔(麟蹄郡 南面 甲屯里 산 598번지)

이 탑은 현재 甲屯國民學校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진 「탑둔지」라고 불리는 곳에 있다. 원래 이곳에 있던 기단부의 下臺石과 中石에다, 甲屯國民學校에 옮겨 보관에 오던 塔身部를 1988년에 옮겨와 組合한 것이다. 塔身部의 由來에 대해서는, 1974년에 甲屯里에서 金富里로 넘어가는 도로를 내면서 연못을 메울 때 연못 주변에서 옮겨간 것이라 한다. 현재 기단부는 單層 基壇이나 원래의 모습은 알 수 없고, 甲石은 기단부의 석타 부분과 石質·樣式·比例가 달라 다른 석탑의 部材가 들어간 것임을 알 수 있다. 탑신부는 2층의 屋蓋와 3層 屋身을 缺失한 3層石塔이다.

기단부의 下臺石은 서쪽면을 제외한 3면에 각각 2軀씩의 眼象이 새겨져 있는데, 眼象의 内部 무늬는 地線에서 花形이 솟아 오른 모습이다. 中石에는 兩隅柱가 模刻되어 있다. 甲石은 아랫면이 거의 水平을 이루고 있고, 모가 진 2段의 副椽이 있는데 下段의 너비가 44.5cm로서 中石의 너비 65cm보다 현저히 좁아 다른 탑의 부재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며, 윗면은 옥개석의 낙수면처럼 경사를 이루고 있다.

탑신부는 1층 屋身만 1석이며, 2층 옥개석은 2층 옥신과, 3층 옥개석은 노반 및 복발과 1石으로 이루어져 있다. 1층 옥신은 1층 옥신의 1/4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옥개석의 遞減은 별로 없다. 각 옥개석은 둔중하며, 아랫면과 윗면 모두 轉角의 反轉이 심한데 옥개받침의 수는 3段이다. 1층 옥신의 上面 중앙에는 커다란 舍利孔이 있다. 상륜부는 노반과 복발이 남아 있는데, 가운데 찰주공이 보인다.

이 탑의 건립시기는 下臺石 各面의 안상 내부에 地線에서 솟아 오른 花形 彫飾, 옥개석의 수법등으로 보아 고려시대로 볼 수 있다.

3. 上南里 石塔材(麟蹄郡 上南面 上南里 945번지)

이 塔材들은 上南里 봉남대(부수동)의 廢寺址에 흩어져 있는데, 절터 앞에는 上南川이 흐르고 있다. 현재 절터는 耕地整理作業으로 원형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塔材들 역시 作業時 냇가쪽으로 밀려난 돌무더기에 섞여 있다. 모두 5點밖에 남아 있지 않아 石塔의 원형복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塔材는 下層基壇片, 上層基壇 面石, 1層 屋身, 屋蓋石片, 屋身石片 등이며 基壇부와 옥개석의 양식으로 볼 때 신라 下代의 특징을 美塔으로 판단된다.

Ⅲ. 甲屯里 五層石塔과 「김부대왕」전설

갑둔리 5층 석탑의 銘文부터 보기로 하겠다. 「菩薩戒弟子」는 왕이 佛子임을 천명하는 문구로서, 중국 南朝 梁나라 武帝가 帝王의 존엄을 굽히고 보살계를 받아 승려의 제자가 되었다는 뜻에서 칭한 것이 그 효시다.¹⁾ 종래 이 문구는 화랑도의 수도처로 알려진 경주 斷石山神仙寺造像銘記에 유일하게 보였는데,²⁾ 이제 1例가 더 추가 된 것이다. 「金富壽命長存△」는 吉祥句로서 소위 發願文이다.³⁾ 그런데 「金富」를 人名으로 인식함으로써 많은 억측이 야기되었고, 이 탑은 「김부탑」이라命名되었다.

「甲屯」리를 위시해서 김부리 일대에는 降兵골, 옥새바위 등 전투·社稷과 관련된 전설 및 지명이 많다,⁴⁾ 여기에다 洞名이, 신라의 마지막 임금 敬順왕의 이름 金傅와 발음이 같으니 자연히 전설의 무대는 新羅末·高麗初로 설정된다. 즉 김부대왕 史蹟에서 마을이름이 유래되었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漢字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했을 것이다. 경순왕은 천년사직을 들어 고려에 歸付했으며, 새 왕조에서는 慶州의 事審官이 되어 대우를 받았다. 자연히 心證은 王

1) 辛鍾遠, 《新羅初期佛敎史研究》, 198~199 및 220~221쪽, 民族社, 1992 참조.

2) 黃壽永 編, 《韓國金石遺文》, 243쪽, 一志社, 1976.

3) 명문의 「五層石塔成 永充供養」은 우리말식 語順을 취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1022)에 제작된 忠州 師子頻迅寺石塔記에 이와 같은 문구가 보인다. 즉 「敬造九層石塔一坐 永充供養 太平二年四月日謹記」, 《朝鮮金石總覽》上, 252~253

4) 「신라의 끝 임금 김부대왕이 와 있었다고 하여 김부동이라 한다」고 설명한 책은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2, 강원편》, 348쪽, 1967. 관련 전설에 대해서는 강원대학교 박물관, 《한계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19~20쪽, 1986 참조.

位禪讓을 반대하고 금강산에 은둔한 麻衣太子 즉 경순왕의 아들에게로 갈 것이고, 따라서 「金富」는 곧 마의태자의 이름이라고 설명하기에 이른다.⁵⁾ 오층석탑에서 400m 지점에 김부대왕 묘터라고 전해지는 곳이 있으니⁶⁾ 김부대왕이 이 곳에서 일생을 마쳤음직하다. 오층석탑에 새겨진 「金富」銘은 비록 현재의 지명과 우연히 일치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추론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자료가 되었다.

그러나 마의태자가 왕 또는 대왕이 된 적은 없었고, 《경주김씨족보》에 의하면 마의태자의 이름은 「佺」 또는 「鎰」이다.⁷⁾ 경순왕릉은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고랑포 3리에 있고,⁸⁾ 마의태자 무덤은 강원도 회양군 금강산 비로봉 북쪽 10리 明鏡臺 앞에 있다.⁹⁾ 1940년에 출간된 《江原道誌》 3권, 古蹟名所條에 의하면 김부리는 金傳大王의 가마가 머물렀다고하는 전설이 있을 뿐이다.¹⁰⁾ 김부리의 지명연혁은 「金寶皇里」¹¹⁾, 「金寶洞」¹²⁾, 「金寶里」¹³⁾로 변화하였다. 즉. 금보황→금보→금부→김부順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지명현상은 「珍(眞)寶嶺」이 「珍富嶺」으로, 춘천시의 「保安驛」이 「美安」으로, 전라북도 保安縣이 扶安郡으로 바뀌었고, 金泉·金堤·金浦·金海의 「金」이 모두 「김」으로 읽히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김부리에는 「大王閣」이 있다. 여기에 「敬順大王太子金公鎰之神位」라고 쓴 위패를 모시고 제향을 올리는데, 이것이 이른바 마의태자 즉 金富大王 사적을 확인시켜주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었다. 원래 김부리의 중심지에 있었는데 6·25 때 불타버린 것을 김부국민학교 교감선생님과 주민 열두 명이 심수하여 현재 위치에 다시 지은 것이다. 그 후 1982년에 신라김씨 문중에서 개축하여 위패를 고치고 鐵馬像 두개를 찾아 모셔놓았다. 대왕각은 6·25 전까지만해도 김부리 인근의 상단지골·항병골에도 있어서 모두 세 채였었다. 상단지골과 김부리 대왕각에는 「敬順大王一子之神位」라고 쓴 위패가 모셔져 있었다. 이들 위패나 위의 고쳐쓰여진 위패 어느 것을 보아도 경순왕을 「大王」으로 칭하였지¹⁴⁾ 神位의 주인공은 「一字」 혹은 「太子金公」일 뿐이다. 그러므로 정작 대왕각에 모신 신위는 대왕이 아니라는 모순이 생긴다. 항병골 대왕각에는 위패가 없었는데, 글을 쓸 사람이 없어서

5) 리태두, 《金傳史蹟記》, 7~10쪽, 갑둔 향토사적 연구회, 1988.

6) 신작로 옆의 언덕으로서, 「通政大夫崔△△」·「司僕崔△△」 등의 묘비가 세워져 있는 조선시대 崔氏 墓域이다. 이외에도 李氏墓가 있다.

7) 慶州金氏鷄林君京派 編, 《慶州金氏族譜》 권 1, 218~219쪽, 回想社, 1985.

8) 史蹟 第 244호. 6.25전에는 長湍郡 長南面이었다.

9) 《江原道志》 권 10, 32葉, 1940. 마의태자가 금강산의 이 곳에서 일생을 마쳤다는 것은 金剛山摩訶衍事蹟에 마의태자의 餘生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위 《慶州金氏族譜》 권 1, 219쪽 참조.

10) 「金富里 在南面 昔日金傳大王留輦處云」

11) 《關東誌》 및 《關東邑誌》, 1830년대.

12) 大東輿地圖, 1861년.

13) 조선총독부, 五萬分之一地圖, 1918년.

14)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王曆篇에는 諡號 「敬順王」을 사용하였는데, 유독 《三國遺事》 紀異篇의 表題만 諱를 써서 「金傳大王」이라 하였다.

창호지를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¹⁵⁾ 제삿날은 세 곳 모두 매년 단오와 重陽節(음력 9월 9일)이고, 특히 김부대왕각 켜상에는 김부대왕이 즐겨 드시던 미나리적과 취떡이 꼭 올려진다고 한다. 이와같은 대왕각 제사의 간단한 記述만 보더라도, 대왕각은 전형적인 민속 神堂이었다. 그러므로 항병골 대왕각만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었고, 다른 두 곳은 김부전설과 관련하여 점차 유교식 위패를 모시는 방식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다.

그러면 왜 神堂을 대왕각이라 불렀을까. 그것은 民俗祭儀의 여러 神位중에서 「대왕님」을 모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아야한다. 《삼국유사》 感通篇, 仙桃聖母隨喜佛事條를 보면, 선도성모는 그 영험함으로 인해 「大王」으로 봉해졌다. 《時用鄉樂譜》에는 「大王飯」·「三城大王」·「軍馬大王」·「別大王」 등의 노래가 있는데 모두 巫歌다.¹⁶⁾ 대왕각은 외형상으로도 鐵馬 또는 土製馬를 모신 일반 서낭당과 별로 다른 점이 없다.¹⁷⁾ 현재 民俗神堂을 「大王閣」이라 부르는 예는 매우 희귀한 것으로서 이곳의 대왕각은 지역적으로 궁벽한 곳이라서 古式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¹⁸⁾

위와 같은 몇 가지 이유로, 신라 경순왕 또는 마의태자의 추종세력이 갑둔리 오층석탑을 세웠다는 俗說은 근거가 없다. 그렇지만 석탑의 發願자가 「菩薩戒弟子」를 칭하였고, 有銘 탑을 세운 사실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적어도 당시 이 지역에는 이러한 佛事를 할 정도의 세력자 아니면 어떤 불교신앙집단이 존재하였고, 그들은 代를 이어가면서 탑을 더 만들었다. 명문이 더 많이 관독되고, 관계 자료가 찾아진다면 이 일대의 탑은 羅末麗初 역사의 一面을 밝히는 좋은 재료가 될 것이다.

〈追 記〉

史料上 「菩薩戒弟子」를 칭한 인물을 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 태조 왕건(神聖王親製開秦寺華嚴法會疏), 武州郡督蘇判鑑 등(朗慧和尚碑文), 建功鄉令 金立言(智證大師碑文), 姜邯瓚(興國寺石塔記), 그러므로 신라 下代에 이르면 귀족 및 下位 지방관들도 이 칭호를 썼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 菩薩戒弟子를 칭한 帝王들 및 韓·中兩國에서 이 호칭을 사용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辛鍾遠, 〈斷石山神仙寺 造像銘記에 보이는 彌勒信仰 집단에 대하여— 신라 中古期の 王妃族峇喙部—〉 《歷史學報》近刊 참조.

15) 《김부사적기》, 39쪽.

神堂에 韓紙를 걸어놓고 제사지내는 예는 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성남리 성황당 일대 등에서 볼 수 있어 드물지 않다. 그런데 원주 성남리에서도 웃성남(상성남)의 서낭당에는 언제부터인지 한지와 아울러 「상성황」이라는 위패를 모시고 제사지낸다. 신종원, 〈雉岳山 石南寺址의 推定과 現存民俗〉 《정신문화연구》 제 17권 1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4 참조.

16) 金東旭, 〈時用鄉樂譜 歌辭의 背景의 研究〉 《韓國歌謠의 研究》, 乙酉文化社, 196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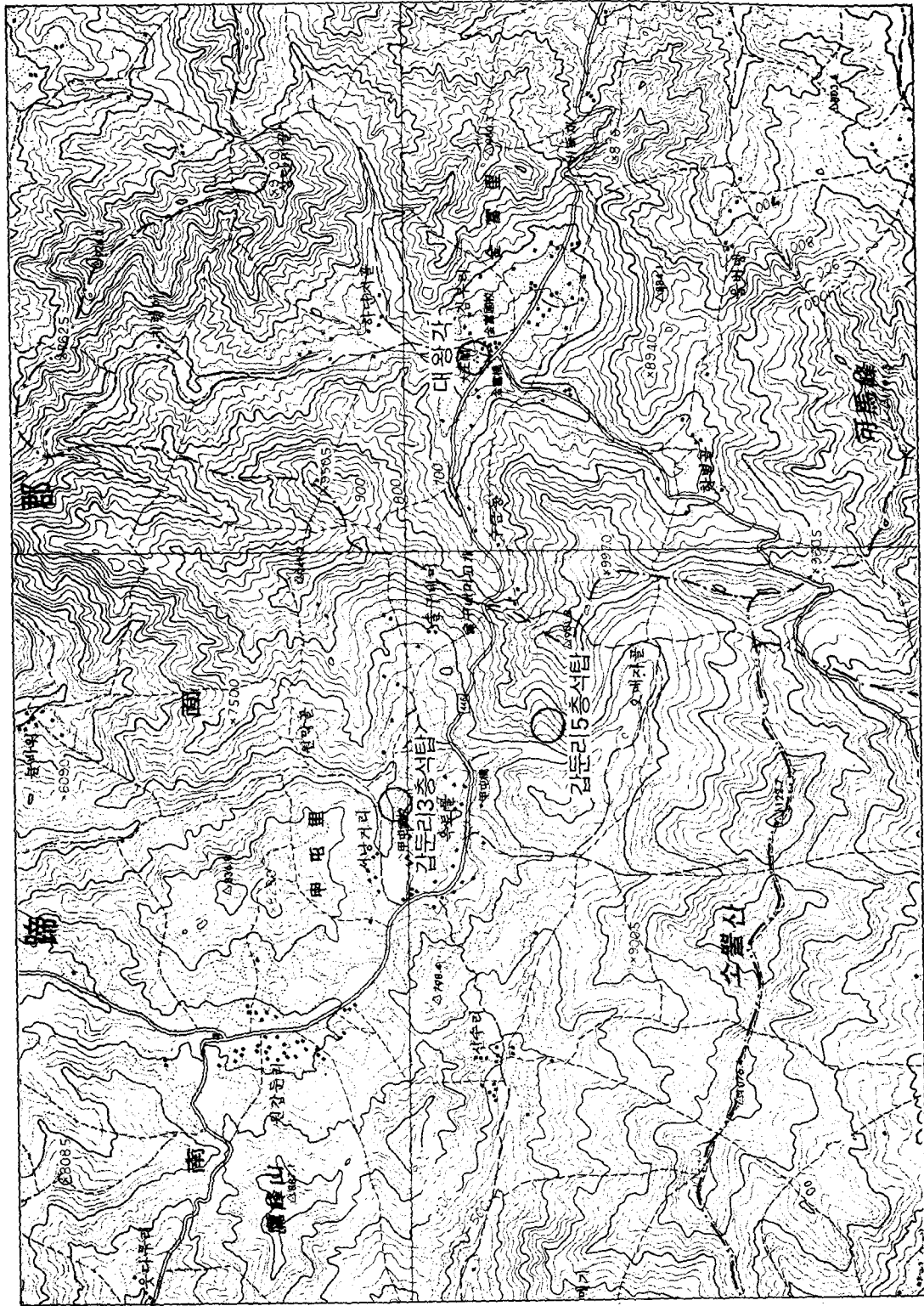
17) 말 신앙 및 서낭당에 모신 馬像에 대해서는 張正龍의 다음 논문 참조.

〈江原道の 馬信仰考〉 《韓國民俗學》18, 民俗學會, 1985 및 〈江原道 서낭신앙의 類型的 研究〉 《韓國民俗學》22,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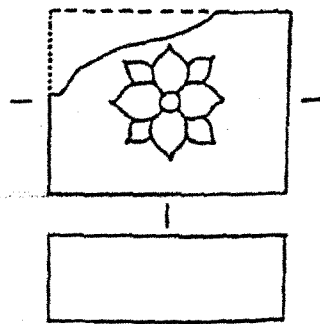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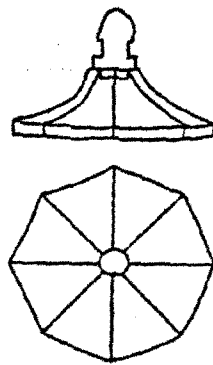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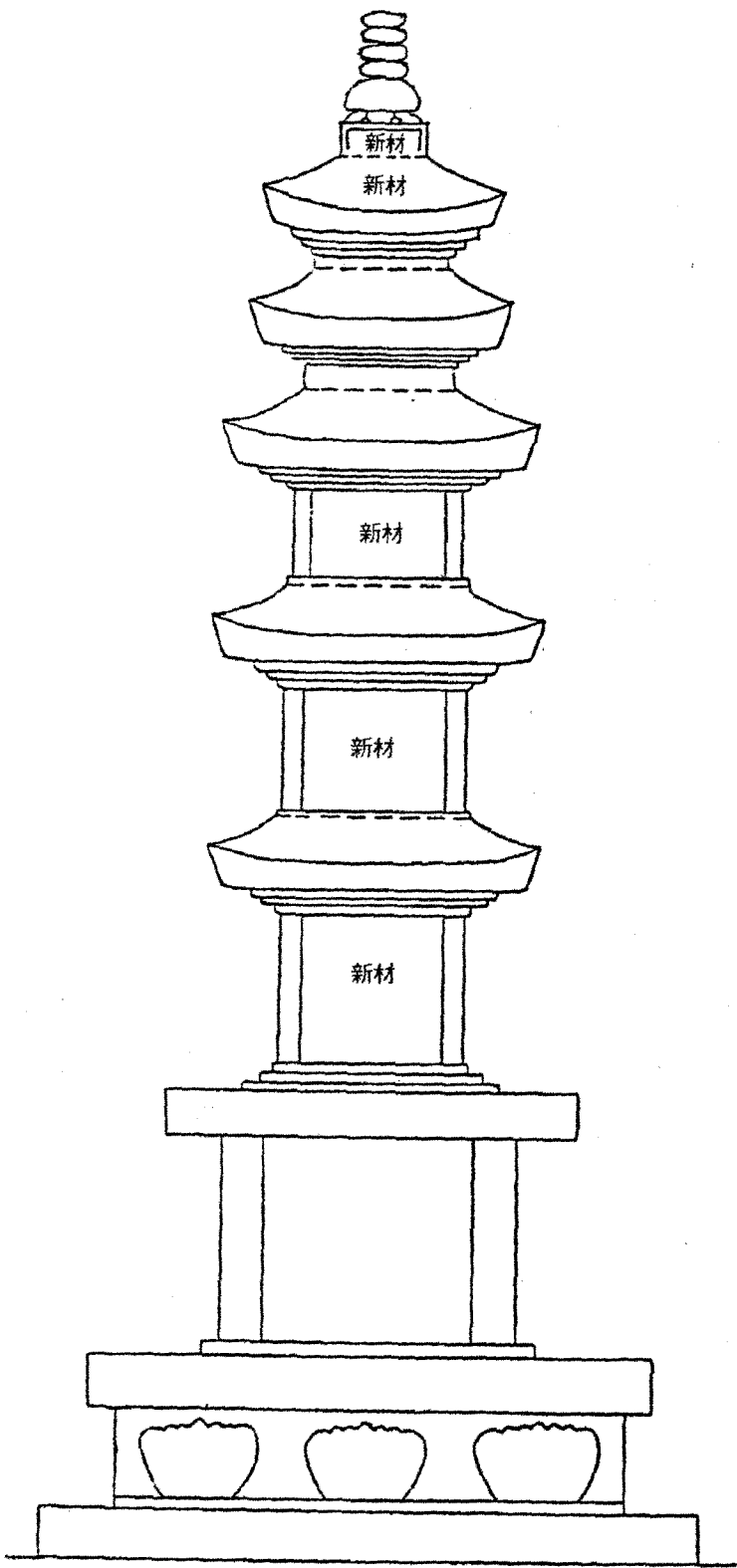
18) 당집도 常設祭壇도 없이 모시는 大王祭의 예를 하나 들겠다. 慶州 감포 앞바다에는 日沒後나 아침에 국과 致誠이 심심찮게 행해진다. 그들은 「대왕님과 그를 수행하는 神衆」께 소원을 빈다고 말한다.(1983년 음력 7월 1일 답사) 이러한 민속신앙을 두고서 「대왕」은 곧 文武大王임을 고증하는 것은 넌센스일 것이다.

民俗祭儀에서 「大王님」을 모시고, 대왕께서 즐겨 드시던 음식이라 하여 특별한 반찬(참나물·간천엽·생선)을 빼놓지 않는 大王祭의 예가 하나 더 있다. 즉 강원도 原州郡 所草面 興陽里 황골(黃谷)이 그러한데, 祭日은 음력 四月初八日이다. 이 곳은 雉岳山 아래 마을로서 이 일대가 조선 太宗의 전설과 얽혀 있듯이, 마을주민들은 「大王」은 곧 「태종대왕」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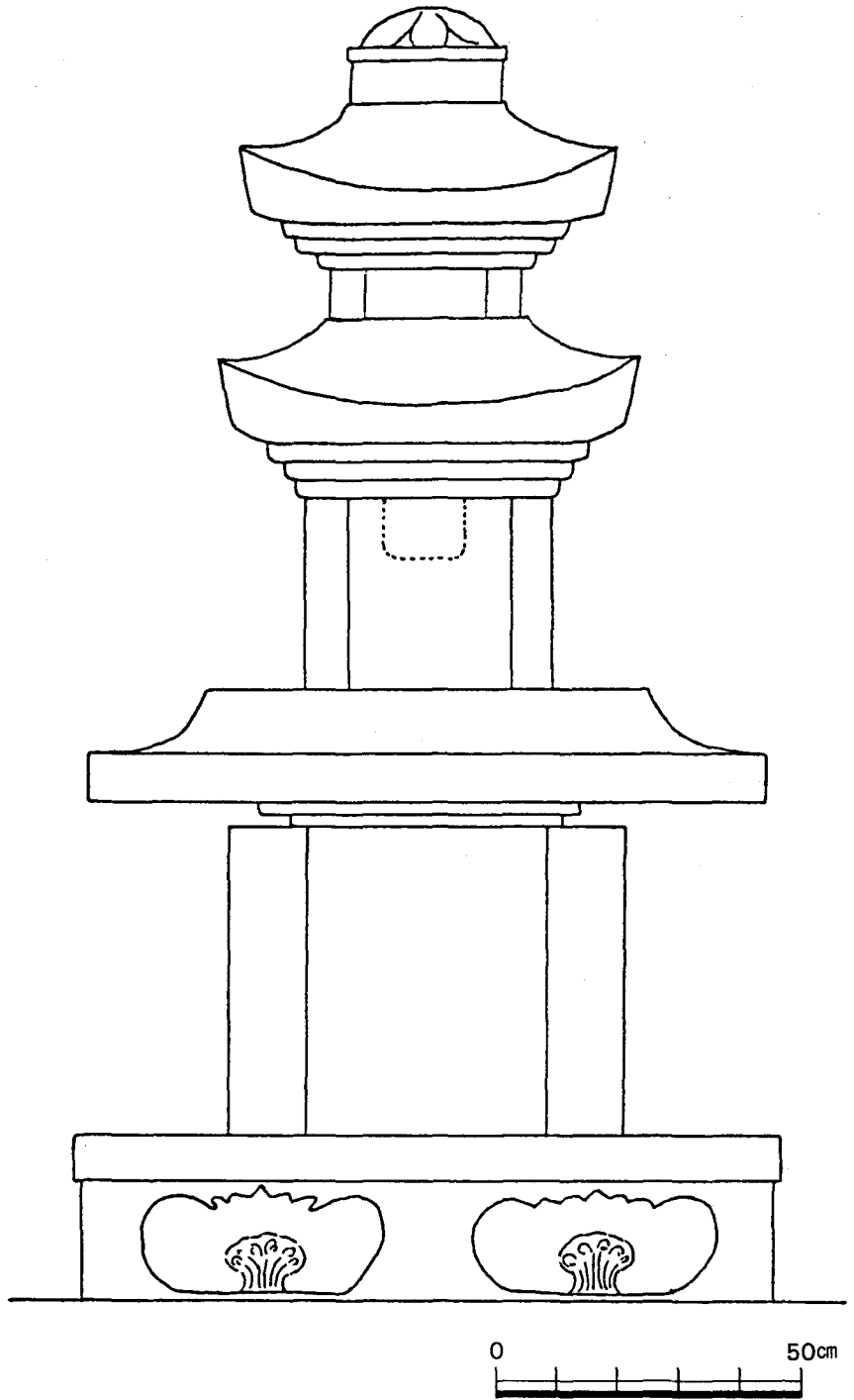
祭堂이나 祭壇은 없고, 숲속에서 韓紙를 걸고 제사지낸다. 머지않아 필자는 이에 대한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그리고 4월 초파일에 洞祭를 지내는 마을로는 역시 강원도 原州郡 神林面 城南里가 있다. 辛鍾遠,〈雉岳山 石南寺址의 推定과 現存民俗〉《정신문화연구》제17권 1호 (통권 54호), 1994. 3, 참조.



대왕리 및 김동리 석탑 위치 (1/50,000)



甲屯里 五層石塔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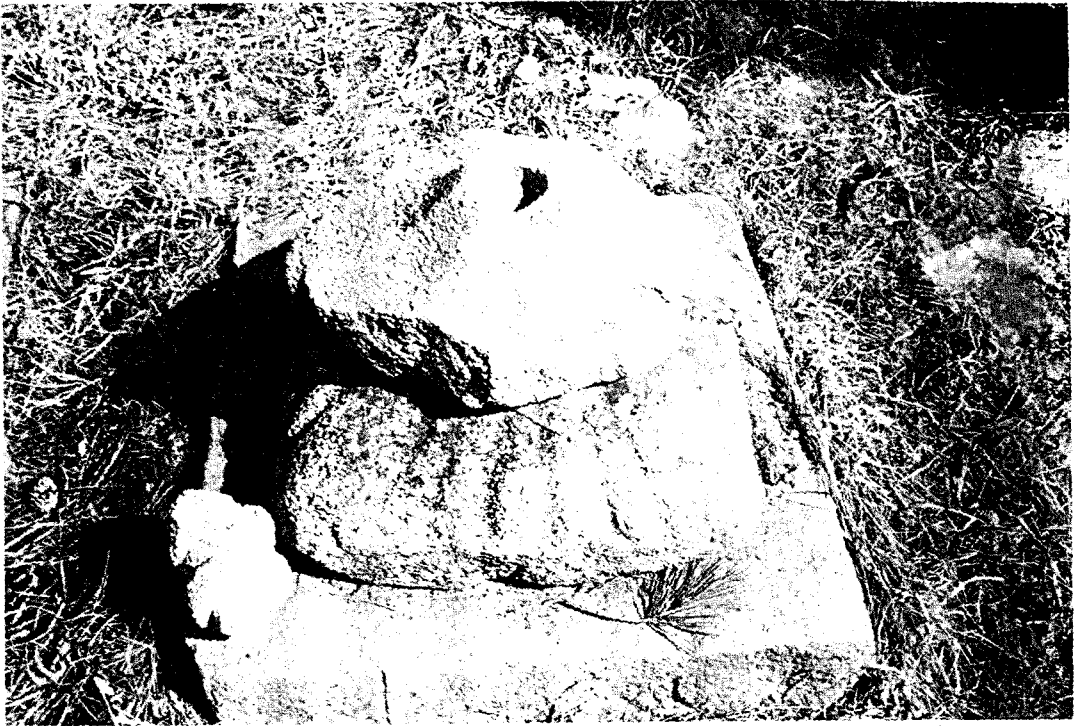
甲屯里 三層石塔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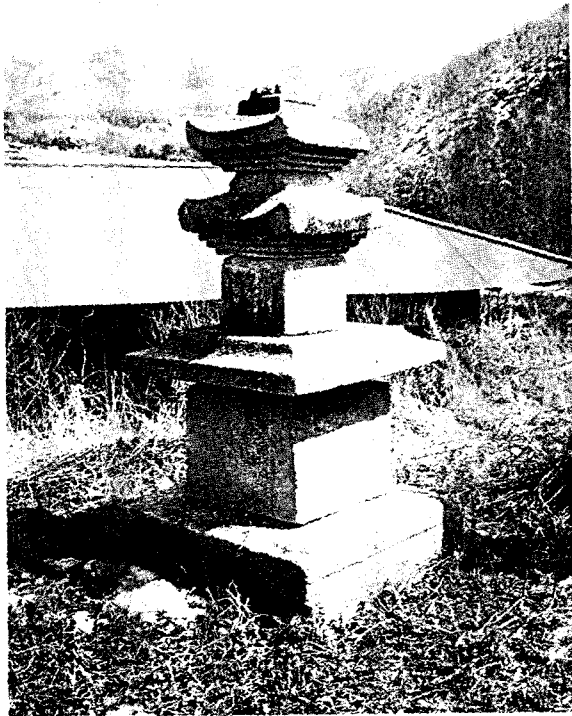
(사진1) 갑둔리 5층석탑



(사진2) 갑둔리 5층석탑 앞 拜禮石



(사진3) 갑둔리 5층석탑 옆 石造遺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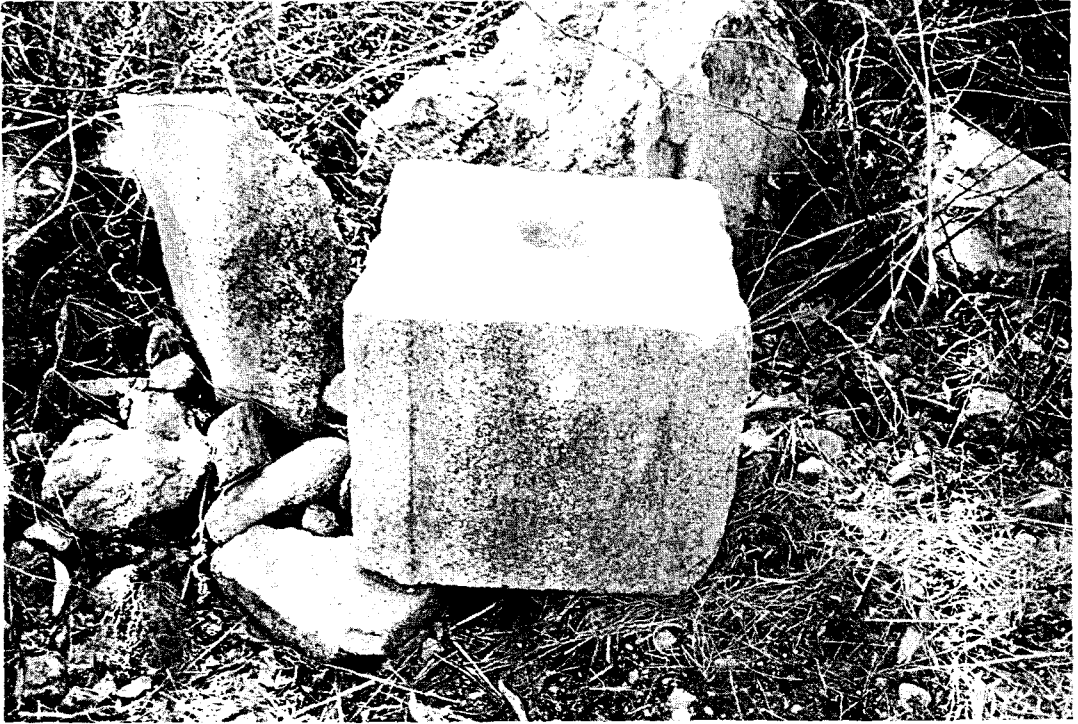
(사진4) 갑둔리 3층석탑



(사진5) 갑둔리 3층석탑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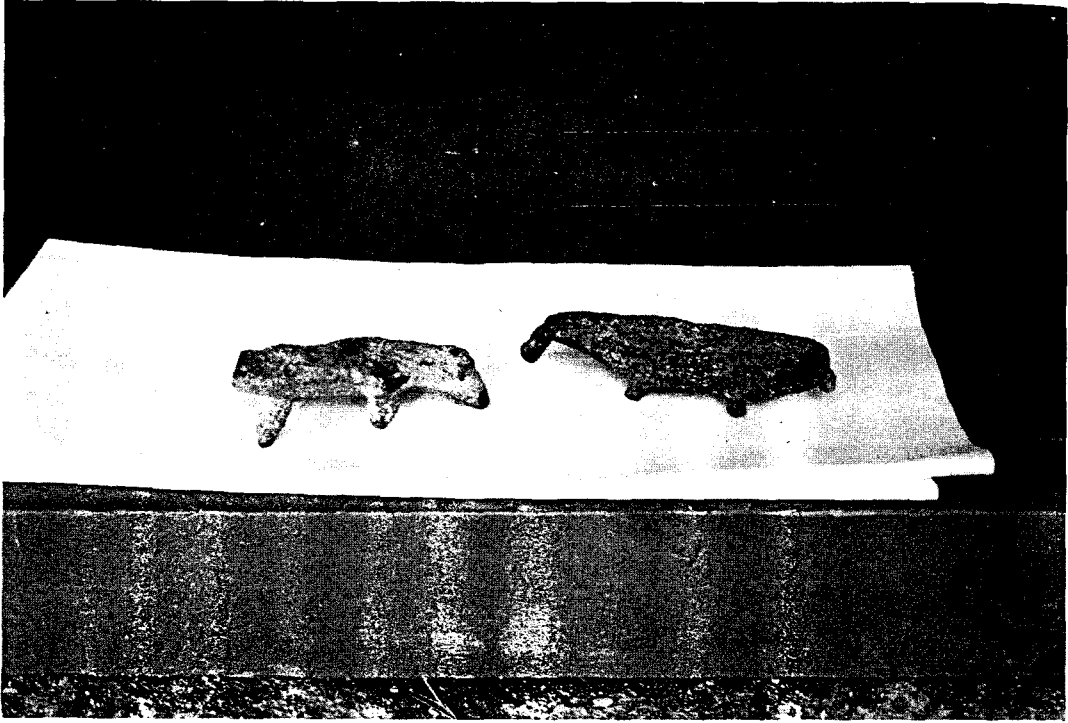
(사진6) 상남리 石塔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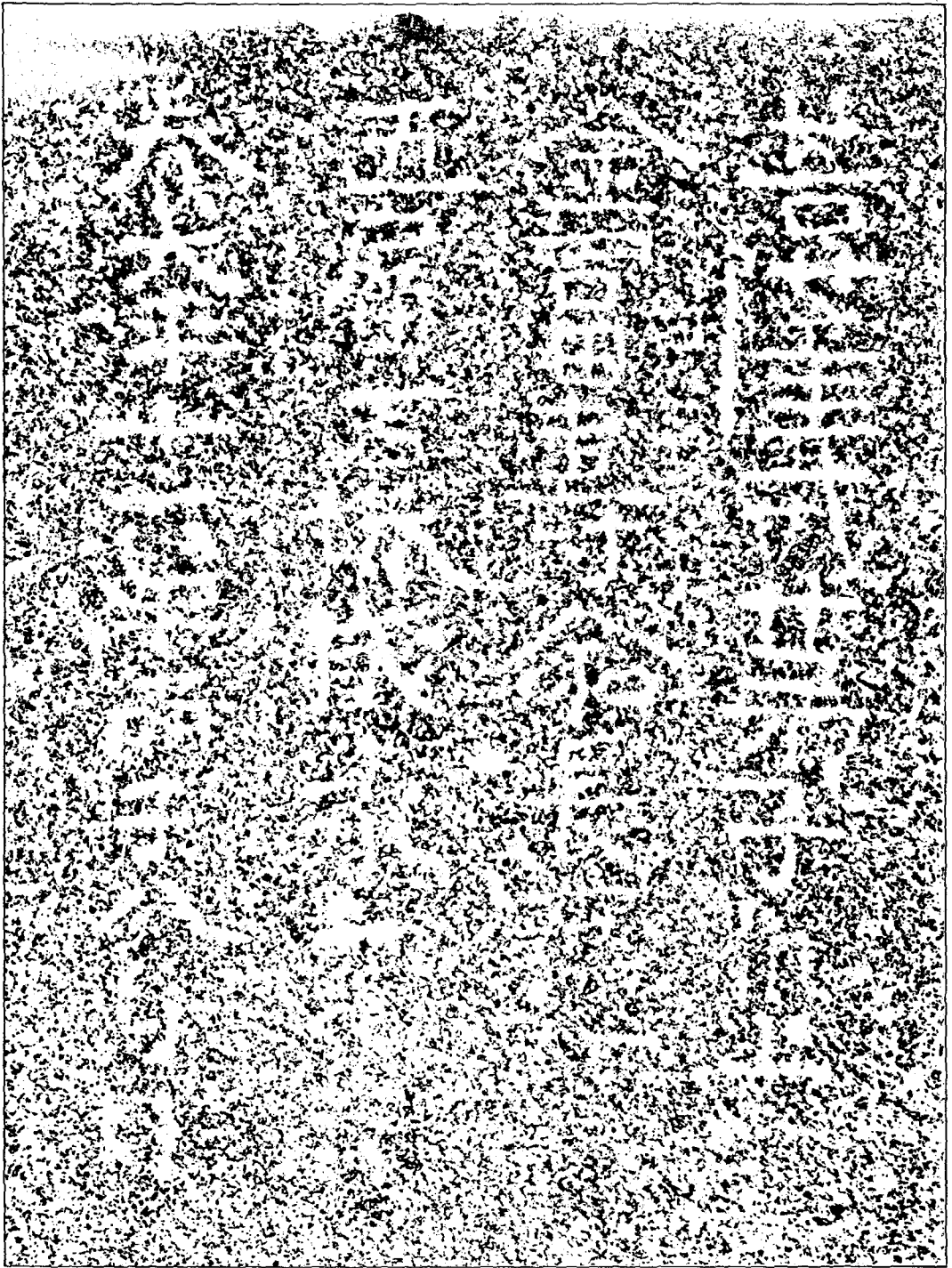
(사진 7) 상남리 石塔材



(사진 8) 김부리 大王閣



(사진9) 김부리 大王閣內 鐵馬



갑둔리 5층석탑 銘文 탁본